



롯데갤러리 광주 신진 큐레이터 공모전 수상자 전시를 기획한 유명진씨와 입수범·권운지·박성수·임송은 작가(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했다.

신진 큐레이터의 특별한 출발 '보물찾기'

‘지역 기획자 발굴’ 롯데갤러리 광주, 신진 큐레이터 공모전 진행
1등 유명진씨 기획, 권운지 작가 등 5명 초대...6월27일까지 전시

큐레이터가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마음껏 펼쳐보는 건 행복한 일이다. 특히 이제 막 발을 댄 신진 큐레이터라면 조금 서툴기는 해도,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구현됐을 때 더 없는 성취감을 느낄 터다.

29일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개막한 ‘보물찾기 : 빼앗긴 호기심을 찾아서’ (6월27일까지)전은 유명진 큐레이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주제 설정, 작가 선별, 전시장 구성, 홍보 등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초보 큐레이터에게 주어진 전시 기회는 올해 처음 열린 ‘롯데갤러리 광주 신진 큐레이터 공모전’을 통해 가능했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은 지역의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보통 지원이나 공모가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들에게 치중해 있는 터라 큐레이터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한 이번 공모전은 의미가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유명진씨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전시 기획비 1000만원을 받아 이번 전시를 꾸렸다. 2등 수상자는 최하얀씨다.

롯데 갤러리는 상금, 전시 공간 지원과 더불어 신진 큐레이터가 이번 전시를 잘 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피드백을 통해 전시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김영애 롯데백화점 아트컨텐츠실 실장, 이은하 콜렉티브 오피스 대표, 조상인 서울경제 기자, 김민경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윤나인 롯데백화점 아트갤러리팀 큐레이터 등이다.

유 씨가 기획한 ‘보물찾기’는 쏟아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정보와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행태에 주목했다. 이미 완결된 정보가 만연하다보니,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행위는 점차 수동적으로 변해간다. 그는 호기심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전시를 기획했다.

유 씨는 전시공간도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감추고 숨기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품 주제와 맞는 지역 작가 5명을 초대했다. 권운지, 김은경, 박성수, 임송은, 입수범 작가를 지금껏 작품을 눈여겨 본 작가들도 있고 인터넷 등 리서치 과정을 통해 초대한 작가도 있다.

권운지의 작품은 즐겨 찾는 바다의 이미지를 새롭

게 해석한 작품으로 아크릴판을 레이저 커팅한 후 화면에 부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전달하며 박성수 작가는 디지털 시대에, 촉각성을 강조한 한지 작품을 통해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임송은 작가는 완성된 풍경 위에 물감을 자유롭게 흘러보낸 ‘Flowing mountain’ 시리즈를 전시하며, 입수범 작가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불규칙하게 펼쳐지는 ‘공터에서 벌어진 일’ 등을 선보인다. 김은경 작가는 영상작품 ‘가시어’를 전시 중이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 씨는 지난해 광주시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학교 교육을 받고 SPACE A 갤러리에서 기획전시 ‘예술가의 고민, 흔적’을 열기도 했다.

유명진씨는 “전시자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수고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 김영애 실장은 “좋은 큐레이터가 있어야 좋은 기획이 나오고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큐레이터를 양성해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또 이들이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두근두근 아시아 문화여행’

ACC재단, 어린이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장면.

(ACC재단 제공)

동굴, 인형, 그림책, 음악, 몬스터...

아시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언급한 키워드는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재들이다. 특히 놀이와 병행하며 창작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금상첨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어린이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매주 주말)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창작실험실.

‘두근두근 아시아 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창작실험실은 모두 8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강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참여 가능 연령과 수강료 확인 필수. (문의 1899-5566)

지난해와 다른 특징은 어린이체험관 및 ACC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전시 별책부록’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번 창작실험실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놀라운 여행’, ‘즐거운 여행’, ‘신기한 여행’이 그것.

먼저 놀라운 여행은 ‘동굴동굴 아시아’, ‘탈탈 무스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는 4월 16일 개강하는 ‘동굴동굴 아시아’

는 아시아 곳곳에 숨어 있는 동굴 속 벽화를 찾아보고 블랙아트를 이용해 나만의 동굴 그림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나라별 가면과 탈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탈 탈 무스탈?’ (5월 21일)은 탈의 의미를 살펴보고 점토를 활용해 입체가면을 만들어보는 창작 프로그램이다. ‘움직이는 기계인형, 오토마타’ (6월 3일)는 아시아 인형극과 기계장치를 활용한 인형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다.

즐거움 여행은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수상한 예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4월 9일)는 월별 선정 주제를 중심으로 우수 그림책을 연계해 가족이 즐기는 스토리텔링 및 창작프로그램이다. ‘수상한 예술’ (4월 15일)은 재미난 표현기법을 경험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컴퓨터 작곡 시퀀스 프로그램인 ‘건방 위의 비트메이커’ (5월 21일)는 작곡의 과정을 체험하고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한 여행은 각각 ‘춤추는 몬스터, 댄싱몬’ (4월 15일), ‘출발! 미래도시탐험’ (4월 22일)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년간 침묵해야했던 ‘그녀들’

푸른연극마을 신작 ‘안부’ 공연

투쟁을 하는 1979년과 격동의 시절을 보내다 마주한 1980년 오월항쟁을 겪으며 헤어지고, 안부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날의 기억을 지운채 살아가던 이순과 고달에게 친구 박정의 소식이 도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광주를 다시 찾은 이들은 누구에게도 할 말 수 없어 망각 속에 가두어두었던 1980년 5월을 다시 꺼내고, 치유받는다.

작품에서는 빵과 우유, 반려식물, 일기장 등이 중요 오브제로 사용되며 냄새와 노래, 춤이 등장한다.

이당금씨가 각본을 쓰고 출연했으며 오세화·전서진·윤부진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오성환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연출했으며 음악감독으로는 박수지가 참여했다.

제작진은 “이번 작품은 80년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광주시민이자, 여성,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인 최초의 여성서사시이자 트라우마에 대한 보고서”라며 “1980년 오월 항쟁을 투쟁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드러난 트라우마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티켓, ‘씨어터 연바람’ 네이버 블로그에 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226-24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0~4월2일 서울 대학로 열린극장
4월 5~9일 광주 씨어터 연바람

작품이다.

작품은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오월민중항쟁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소박했던 삶과 꿈, 항쟁 이후 남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작품의 주인공은 공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면서도 늘 꿈을 놓지 않았던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무진 성격으로 노조 대의원을 맡고 있는 박정,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소녀가장 이순, 가수를 꿈꾸는 고달. 서로 처지가 비슷한 세 명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동법

작품은 흑백 사진 한 장에서 출발했다. 1980년 전남도청 분수대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어깨동무한 단발머리 여성들은 유독 눈에 띄었다.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로케트 전기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푸른연극마을의 신작 ‘안부-오래된 침묵을 간직한 그녀들의 봄의 제전’은 40년간 침묵해야했던 ‘그녀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감춰진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작품이다.

푸른연극마을이 ‘안부’를 서울(30일~4월2일 대학로 열린 극장)과 광주(씨어터 연바람 5일~9일)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문화자산콘텐츠제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특히 30주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이 올해 선보이는 첫번

광주비엔날레 이숙경 예술감독 초청 강연

광주시립미술관, 4월 3일 ‘미술관포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2023 미술관포럼(매달 첫번째 주 월요일)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이숙경 예술감독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4월 3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

‘2023 광주비엔날레: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감독은 올해 주제를 설명하고 대중들에게 다소 난해하게 여겨지는 현대

미술을 친근감있고 현장감 있게 미리 소개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의 힘을 새로운 표현으로 삼아 참여 작가들과 함께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 법을 모색한다.

전시는 4월 7일부터 9일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이숙경

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구레 ‘푸르른 날’ 음악이 흐른다

4월 8일 석상근 콘서트
매주 토요일 오디오 청음회도

구레 ‘음악이 흐른다’ (간전면 간문대평1길)는 1930~70년대의 빈티지 명기 오디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 카페로 매년 정기 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봄을 알리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4월을 맞아 올해 첫 음악회 ‘동심 소환 콘서트’를 진행한다.

오는 4월 8일 오후 7시 ‘푸르른 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주는 동요와 가곡 등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바리톤 석상근이 출연, 다양한 음악을 선사한다. 이탈리아 마스카니 국립음악원 졸업한 석 씨는 티토 고티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최고의 바리톤 특별상을 수상



석상근

했다며 자코모 야라강, 레나타 테발디 등 유럽의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일곱 차례 우승했다. 공연 레퍼토리는 ‘나비야’, ‘고향의 봄’, ‘섬집 아기’, ‘과수원길’, ‘별을 캐는 밤’, ‘살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르른 날’, ‘마중’ 등이다.

이번 공연은 ‘음악이 흐른다’가 사회적 기업 툴뮤직과 함께 기획했다.

한편 ‘음악이 흐른다’는 매주 토요일 예약을 받아 다양한 오디오 시스템을 접하는 청음회도 개최중이다. 문의 0507-1427-557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